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을 적시하고
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주간지입니다.

2016/7. 11

국토정책 Brief
KRIHS ISSUE PAPER

KRIHS POLICY BRIEF • No. 574

발행처 | 국토연구원 • 발행인 | 김동주 • www.krihs.re.kr

지역주도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

이순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

요 약

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지역특화발전을 구현할 핵심수단으로서 국토문화자원과 활용에 주목

– SOC, 경제력 등에 기반한 물리적 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닌 소프트파워에 대한 관심 증가

– 이 과정에서 문화라는 개념이 정책적 차원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,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지님으로써 특화가 가능하고, 지역의 의지나 기반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

2 지역도 경쟁적으로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지역발전 효과 제고에는 여전히 한계

– 저성장시대, 중앙정부가 인프라 개발사업을 축소하거나 관련예산을 삭감하면서 각 지자체는 저마다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한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을 앞다투어 추진

– 그러나 지역 활성화의 동력이 될 만한 국토문화자원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그 가치를 발굴 및 활용하는 지역의 경험과 전문성,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

3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보존·이용·창출할 수 있는 지역역량이 중요

– 모든 국토문화자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개발 잠재력을 지닌 자원이 분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임

– 이를 위해서는 잠재력을 지닌 문화자원과 그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,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,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내 역량, 시민참여와 협력 및 네트워크 기반이 갖추어져야 함

시사점

① 국토문화자원의 발굴 촉진 및 활용수준 제고: 기존 문화자원 활용사업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조정; 문화자원의 발굴·조사·연구·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; 문화자원의 활용잠재력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등

②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: 문화자원 활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; 중·장기 사업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; 전문성을 갖춘 조직 구성 및 운영;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 타 계획·사업과 제도적 연계성 강화 등

③ 지역 주도가 가능하도록 내부역량 강화: 취약한 지역의 관련 인력구조 개선 및 전문성 강화; 지역의 창의인재 발굴 및 지원; 지역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자원의 활용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 등

④ 협력적 거버넌스 및 다차원적 네트워크 구축: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구축; 시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; 관련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

1. 자원의 가치 발견과 활용능력, 내생적 발전의 원동력

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
20세기 지역정책의 큰 흐름인 성장거점전략과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반성과 함께, 지역 고유자원의 개성을 살린 특화발전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이동

- 2000년을 전후해 영국은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 모든 지역의 동시 발전으로 전환, 프랑스도 균형발전보다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추진, 일본도 균형발전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의 자립적 발전 또는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을 강조
- 이러한 변화의 요체는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특성 있는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해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려는 즉, 장소성의 강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

우리 정부도 '국민행복, 희망의 새 시대'라는 국정비전을 뒷받침할 국정기조로 경제부흥, 국민행복,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표방하고 다양한 후속조치를 강구

- 정부는 문화융성 구현을 위해 문화·예술 진흥, 문화향유 수준의 제고, 문화를 통한 지역산업발전 도모라는 3대 문화정책 목표를 제시
- 지역발전위원회도 '지역발전 5개년계획(2014~2018)'을 통해 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, 문화특화지역 조성,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브랜드 있는 지역 만들기, 지역별 특화 콘텐츠산업 육성, 산업단지, 폐산업시설 등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등을 제안

이러한 흐름은 지역특화발전을 구현할 핵심수단으로서 국토문화자원과 그 활용에 주목

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SOC, 경제력 등에 기반한 물리적 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를 지닌 소프트파워에 대한 관심을 증대

- 이 과정에서 지역발전정책에 문화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,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지님으로써 특화가 가능하고 지역의 의지나 기반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
- 문화와 그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정책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, 장소마케팅, 문화수도, 컬처노믹스, 창조도시, 창조문화도시 등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

문화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, 이러한 정체성과 그 가치의 발굴 및 활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종합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한 수단임

- 따라서 문화자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그 특성과 함께, 이들 국토문화자원이 얼마나 잘 활용(보전·이용·창출)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
- 모든 국토문화자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개발 잠재력을 지닌 자원이 분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임

2. 정부주도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의 성과와 과제

정부차원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의 주요 내용

그동안 정부는 문화와 문화적 요소를 보존하고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

○ 지역발전위원회, 문화체육관광부, 행정자치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문화재청 등 다수의 기관에서 관련 사업 추진

표 1 정부가 추진한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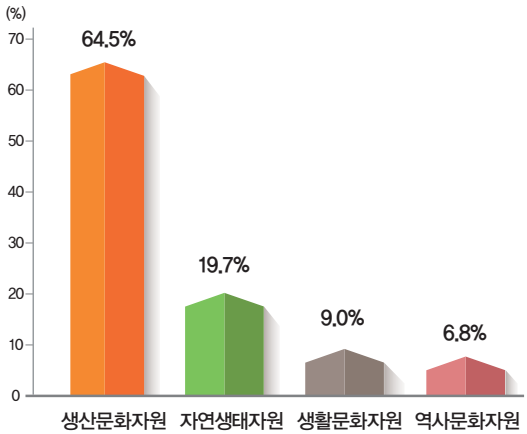
정부부처	사업명
지역발전위원회	·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· 협력사업 · 창조지역사업
문화체육관광부	· 지역문화 기초통계자료 작성사업 · 지역문화 인력 양성사업 ·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· 지역문화원 시설 지원사업 ·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 ·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·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·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·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·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·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· 산업단지·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· 문전성시 프로젝트 · 전통문화자원 발굴·활용사업 ·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·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·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·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· 관광두레 사업
행정자치부	· 마을기업 육성사업 ·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· 접경지역 생태·평화벨트관광명소 연계기반 구축사업
농림축산식품부	·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· 농촌축제 지원사업
산업통상자원부	· 지역연고(전통)산업 육성사업
환경부	·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
국토교통부	· 도시재생사업 ·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
해양수산부	·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· 특화 어항 개발사업 ·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
문화재청	·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

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얼마나, 어떤 국토문화자원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근 동향은 「지역발전사업 편람」, 「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」, 「지역행복생활권 제안사업」을 통해 파악

○ 전체사업 중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 비중: 지역발전사업 편람 내 총 360여 개 중 38개(10.5%), 지역특화발전특구 총 163개 중 101개(62.0%), 지자체가 제출한 631개(총 1440개 중 2015년 사업비 반영사업) 지역행복생활권 제안사업 중 95개(15.1%)

○ 자원 유형별 분포: 생산문화자원이 전체의 64.5%로 가장 많았고, 자연생태자원, 생활문화자원, 역사문화자원 순으로 나타남[1)]

그림 1 지역발전에 활용된 국토문화자원 유형



1) 일반적으로 국토문화자원이란 역사문화자원, 생활문화자원, 생산문화자원으로 구분되며, 자연생태자원도 그 일부로 보기도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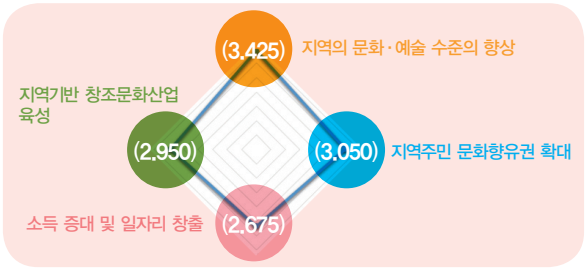
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의 지역발전효과에 관한 전문가 의견

2015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68명으로 구성된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, 응답률은 약 59%임

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

- 4개 세부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, 전체 항목 평균이 3.025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수준은 '보통' 정도로 평가
- 항목별로는 '지역의 문화·예술 수준 향상'에 미친 효과가 가장 높다고 평가했고(3.425), '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' 효과는 가장 낮게 평가(2.675)

그림 2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



주: 아주 낮음(1점)–낮음(2점)–보통(3점)–높음(4점)–매우 높음(5점)

국토문화자원 활용방식별 현재 수준과 중요도

- 현재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수준은 평균이 2.877인 반면, 그 중요성은 4.032로 그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토문화자원 활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
- 향후 사업 추진 시 국토문화자원 활용방식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이 중요하나 특히 문화적 요소를 도출하여 콘텐츠화하거나 창조적 문화(산업)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

표 2 국토문화자원 활용방식별 현재 수준과 중요도

국토문화자원 활용방식	현재 수준		중요도	
	평균	순위	평균	순위
문화자원 자체를 그대로 이용	3.179	3	3.600	6
문화적 요소를 도출하여 콘텐츠화	2.590	5	4.450	1
체험·교육·관광 등 프로그램 개발	3.308	2	4.231	4
문화자원 연계 파생상품 개발	2.410	6	3.897	5
지역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화	3.000	4	4.225	3
축제 및 이벤트로 연결	3.475	1	3.513	7
창조적 문화(산업)공간으로 조성	2.179	7	4.308	2
항목 평균	2.877		4.032	

주 : 매우 낮음(1점)–낮음(2점)–보통(3점)–높음(4점)–매우 높음(5점)

정부 주도 또는 지원을 통한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의 해결과제

국토문화자원의 보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, 정부 주도 또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남

-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로 지적
- 정부 예산투입과 노력에 비해 지역발전전략 수립 시 국토문화자원의 실질적인 활용 정도 미흡
- 다 부처 사업의 산발적·개별적 추진으로 지역 내 관련 사업 간 연결성 및 연속성 부족
- 사업 추진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구도 형성 등

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내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

- 특히, 자원 활용과 관련 사업을 견인할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와 이들을 활용할 구체적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

3. 지역주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소

외국사례를 통해 본 성공요소

창의적 사고를 통해 재생에 성공한 '아사히야마 동물원'

- 폐원 위기에서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재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동물원장과 사육사들이 학습조직을 통해 자발적으로 동물의 특성과 능력을 살린 '행동전시' 기법을 전면 도입하고,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 데 있음
- 펭귄, 침팬지, 조류 등 동물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가슴으로 접촉하고 싶은 방문객 욕구를 읽고,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전개

그림 3 아사히야마 동물원

▲ 사육사들이 만든 바다표범시설 스케치

▲ 사육사들의 스케치에 따라 만든 실제 바다표범관 내부

예술작품을 낙후지역 경관에 접목시킨 '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'

- 지역주민의 이해와 문화예술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지역 만들기 모델, 즉 미술제라는 이벤트를 낙후된 이미지의 농·산촌 경관 및 빈집에 융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
- 특히,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술제를 통해 전시된 작품들을 관광객 유인 등 지역발전수단으로 적극 활용

그림 4 에치고츠마리

▲ 계단식 논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

▲ '꽃피는 츠마리'라는 제목의 조형물

퇴색하던 지역 헌 책방을 테마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만든 '헤이온와이'

- 역사성을 지닌 일상문화(책)가 존재했고, 활용대상 자원의 실제 주인(주민이자 상인)들의 자발적 노력이 있었으며, 여기에 지역 장소성(리처드부스 서점, 고성 서점, 국립공원 초입 등)이 하나의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
-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세제 혜택이나 입주자 자금지원, 제도 개선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해 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

그림 5 헤이온와이

▲ 헤이온와이 헌책방 거리

▲ 헤이 페스티벌의 모습

표 3 외국사례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소

구분	아사히야마 동물원	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	영국 책마을 헤이온와이
활용자원	오래된 동물원	예술작품과 자연·인문경관	헌 책방
주요 동인	행동전시로 독창성 확보	대지예술제	헤이페스티벌(책축제)
주체	동물원장과 사육사+주민 참여	예술가, 주민, NGO	마을주민(상인)
성공요소	① 지역리더의 의지와 노력(동물원장) ② 창의적 사고와 독창적 아이디어 활용(사육사들의 행동전시 아이디어) ③ 수요자(관람객) 관점에서 접근(디자인) ④ 여가패턴 변화 대응 특화 공간·프로그램 ⑤ 지역주민(단체)의 참여 유도	① 자연·인문환경과 예술을 결합해 독창성 강조 ② 지역출신 예술가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 ③ 글로벌 차원의 참여 유도 및 확대 ④ 다양한 행사로 상시 전시·관람환경 유지 ⑤ 도농교류 및 세대교류 활성화,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	① 독특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② 핵심자원+주변 연계자원 개발 ③ 지역자원의 세계화에 노력 ④ 지역주민(상인) 주도의 사업추진+정부 간접지원 ⑤ 지역사회 협력체계(커뮤니티) 구축

다수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본 중요 성공요소와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

국내·외 사례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(meta-analysis)을 실시한 결과,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소는 크게 4개 범주로 유형화됨

- 4개 범주는 '문화자원 발굴·활용', '제도적 기반 구축', '지역내부 역량 강화', '참여·네트워크 확대'이며, 각 범주별로 도출된 세부 성공요소는 모두 25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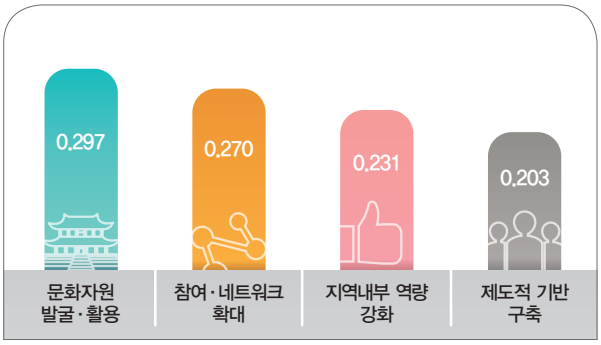
성공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위해 계층화분석기법(Analytic Hierarchy Process)을 활용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조사

- 응답자 40명 중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되는 31명의 응답결과만으로 분석을 실시

4개 범주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

- '문화자원 발굴·활용'이 0.297로 가장 중요한 범주로 분석되었고, '참여·네트워크 확대'가 0.270, '지역내부 역량 강화'가 0.231, '제도적 기반 구축'이 0.203 순으로 나타남
-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주는 무엇보다 활용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임을 보여주는 결과

그림 6 4개 범주의 상대적 중요도



범주별 성공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

◦ 문화자원 발굴·활용이라는 범주 내에서는 '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'이,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범주 내에서는 '법·제도 마련 등 정부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'가, 지역내부 역량 강화라는 범주 내에서는 '구성원의 문화자원 가치 인식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'이, 참여·네트워크 확대라는 범주 내에서는 '사람–자원–장소(공간)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화'가 개별 범주 내 다른 성공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

전체 성공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

◦ 25개 성공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, '사람–자원–장소(공간)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화'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었고, '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', '활용잠재력과 경쟁력 높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발굴', '문화거점 조성–거점 간 연결–주변지역(자원)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', '구성원의 문화자원 가치 인식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'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표 4 성공요소별 상대적 중요도

범주용	가중치 (순위)	성공요소	범주별		전체	
			가중치	순위	종합 가중치	순위
①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	0.297 (1)	① 체계적인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시스템 구축	0.111	6	0.0330	16
		② 활용잠재력과 경쟁력 높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발굴	0.207	2	0.0615	3
		③ 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	0.220	1	0.0653	2
		④ 다양한 수준의 문화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	0.177	3	0.0526	6
		⑤ 여가행태 변화에 맞춘 특화된 문화공간·시설 확충	0.140	5	0.0416	13
		⑥ 문화창조산업으로 육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	0.144	4	0.0428	12
② 제도적 기반 구축	0.203 (4)	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안정적 예산 확보	0.214	2	0.0434	11
		② 법·제도 마련 등 정부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	0.236	1	0.0479	9
		③ 다부처 관련 사업 간 연계성 강화 및 정보 공유	0.137	4	0.0278	19
		④ 공간계획체계(도시계획·재생전략 등) 연계 반영	0.156	3	0.0317	18
		⑤ 문화자원 활용 관련 규제 완화	0.100	5	0.0203	22
		⑥ 관련 업무 통합수행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	0.076	7	0.0154	25
		⑦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첨단정보시스템 구축	0.080	6	0.0162	24
③ 지역 내부역량 강화	0.231 (3)	① 기관장의 의지, 신념, 지도력 등 리더십 존재	0.172	3	0.0397	14
		② 구성원의 문화자원 가치 인식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	0.231	1	0.0534	5
		③ 조직의 기획·연출력, 비즈니스 마인드 및 운영능력	0.139	4	0.0321	17
		④ 지역 창의인력 보충 및 전문성 강화	0.192	2	0.0444	10
		⑤ 외부인력·자본·문화에 대한 개방성	0.077	7	0.0178	23
		⑥ 중앙정부 등 관의 개입 및 의존도 최소화	0.088	6	0.0203	21
		⑦ 획기적이고 기발한 홍보 및 마케팅전략 마련	0.101	5	0.0233	20
④ 참여·네트워크 확대	0.270 (2)	① 산·학·연·민·관 상호 교류 및 협의체 활성화	0.182	4	0.0491	8
		② 중앙정부–지자체 간 협력 및 관련 지자체 간 공조	0.188	3	0.0508	7
		③ 내·외부 전문가 네트워킹화된 큐레이터시스템	0.142	5	0.0383	15
		④ 사람–자원–장소(공간)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화	0.276	1	0.0745	1
		⑤ 문화거점 조성–거점 간 연결–주변지역(자원)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	0.213	2	0.0575	4

주: 31명 〉 C.I. 0.2 [응답자 40명 중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되는 31명의 응답결과(일관성지수인 Consistency Index가 0.2 이내)만으로 분석을 실시했다는 의미]

4.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의 지역발전효과 증진방안

향후 국토문화자원 활용전략과 그에 수반된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정책방안이 필요함

활용 잠재력을 지닌 국토문화자원 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내 인식 제고와 환경을 조성하고, 그 가치를 보존·이용·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.

- 이를 위하여 '기존 문화자원 활용사업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조정'이 필요하고, '문화자원의 발굴·조사·연구·개발을 전담할 조직 및 인력의 확충', '국토문화자원의 활용잠재력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', '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중심으로 사업예산 편성 유도' 등의 방안이 필요

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고,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

- 이를 위하여 '국토문화자원 활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제의 완화'를 비롯해, '단편적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중·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', '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', '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제도적 연계성 강화' 등이 필요

중앙정부와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, 지역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내부역량을 강화한다.

- 이를 위하여 지역 내 '취약한 인력구조 개선 및 전문성 강화'와 함께, '지역의 창의인재 발굴 및 지원', '지역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활용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' 등이 필요

지역 내·외부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, 사람–자원–장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그 노력과 결실이 지역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.

- 이를 위하여 '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구축', '시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', '관련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', '사람–자원–장소가 연계된 다양한 사업 발굴', '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의 추진' 등이 필요

※ 본 자료는 "이순자·이동우·박태선·박경현·장은교. 2015.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. 국토연구원"에서 관련내용을 발췌·정리한 것임.

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(sjalee@krihs.re.kr, 031–380–0250)

KRIHS 국토연구원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홈페이지 www.krihs.re.kr
전화 031–380–0114 팩스 031–380–0470